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경:요한복음 16장 24-33절
(Tag:)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24-33)

모든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

스스로 살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부모가 나를 양육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함을 이겨낼 힘이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양질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비싼 과외 수업을 받았다는 뜻일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았다는 뜻이 더 크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가 비록 비싼 과외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 비교적 더 비싼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처음에는 더 늦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뒤처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좋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충분히 비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 되는 길을 열어 두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14:7)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20)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뒤에 오시는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 부분이 많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아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도 아셨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실현되는 말씀이다.

20 그 날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그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후는 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실현되고, 평안이 실현되어야 그 이후에 영적인 모든 보화들이 열매를 맺게 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일까?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모두 도망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가?

19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
느니라 (약2:19)

심지어 귀신들은 떨기까지 한다. 즉 경외한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
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친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도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영

똥한 행동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곧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다 다시 생각날 것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평강이 회복될 것이다. (이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평안의 회복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도 평안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평안, 혹은 평강은 성경의 핵심 가치이다.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8:6)

이것은 마치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

내 안에 평안이 실현되면 사람이 비로소 온전해지며, 회복되며, 정상이 되며, 모든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된다.

평안이 없으면 인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며

말에 실수가 많아지며
하지 못하고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운동을 하지만 살은 빠지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애를 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영적으로도 같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잡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잡다해 질뿐이다.

영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니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니 호르몬 작용이 비정상이고, 호르몬 작용이 비정상이다 보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견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그분을 사랑합시다.

사람이라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능한 것이 사랑이다.

(인정이라도 베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밥상머리 교육 성경: 잠언 23장 1-18절 (Tag:)

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3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9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0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 대저 그들의 구속지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의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 23:1-18)

예의란 서로 편하자고 있는 것이다. 가까울수록 예의는 중요함.

87. 자식교육은 어른들 앞에서하지 말라. 인사해야지... 자식교육은 집안 울타리 안에서만 해라.

86. 식당에서 자기 자식을 잘 관리하라. 아이가 무례하지 않도록 하라. 남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라.

85. 인사. 식당, 화장실, 기차, 버스 비행기 등에서는 인사하지 말라. 눈인사만 하라. 대답을 요구하는 인사는 하지 말라. 목례, 미소,

84. 열정만으로 일하지 말라. 전문가는 서두르지 않는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라. 열정이란 일을 덤빈다는 뜻. 덤빈다는 뜻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어깨넘어로 배우면 그런다. 어깨넘어 지식은 위험하다.

83. 식당, 주방일을 할때 소리를 내지말라. 그릇 부딪히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다. 설겅이 하면서 식당에서 소리내면 먹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준다.

82. 잔반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81. 조심성. 조심스럽게 서비스 하고, 한손으로 서비스하지 말라. 문을 여닫는 모습과 물건을 다루는 모습을 본다. 물건을 두손으로 옮겨라. 아무리 가벼워도 밀지 말고 들어서 옮겨라. 끌지 말고.

80. 음식을 상대방에 권하지 말라.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떠서 권하지 말라. (맛있게 드세요. 더 드실래요 만 한다.)

79. 음식을 불평하지 말라. 특히 가족이 해 주었을 때는.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간을 맞추어서 먹으라. 밥상이 너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공궤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

78.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라. 손가락을 먼저 놓지 말라. 보조를 맞추고 상대편보다 약간 늦게 먹으라. 계산 미리 하려고 먼저 일어나지 말라. 식사한 후에 하라. 불안하면 미리 하든지.

77.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당번이 있게 하라. 자기 입맛에 맞다고 부패음식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떠 오지 말라.

76. 식사후 손가락이나 포크를 얹어놓지 말라. 쟁반 곁에 두라. 화장지도 포개서 놓으라. 그 위에 손가락 젓가락을 얹어 놓으라.

75. 식사중 대화에 끼어들건지 말건지를 잘 알아서 처신 하라.

74. 식당으로 초대하는 경우, 초대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게 하라. 예약제이기 때문이다. 안내를 위해서.

마카커피 주소. 모두다 커피 주소. 초대한 사람이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해 놓았다.

73. 윗사람이 앉기 전에 먼저 앉지 말고, 윗사람이 먼저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말라. 윗 사람앞에서 반바지 입지 말라. 윗사람앞에서 껄껄 웃지 말고 미소 지으라. 윗사람이 먹으라고 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